방시혁, "BTS 성공 비결은 시대정신 담긴 메시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사진)가 지난달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 진행한 인터뷰가 지난 8일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타임지는 방시혁 대표를 '세계 최고 보이밴드 방탄소년단(BTS)의 제작자' 로 소개하며 그가 이끄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현재 음악 산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 사례" 라고 평가했다. 타임지는 특히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성공 비결' , 그중에서도 '미국 음악 시장에서의 성공 방정식' 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인터뷰에서 방 대표는 "성공에 대한 정확한 인과 분석은 어렵지만 소위 미국 '주류' 에서 통하는 공식과 다르게 접근한 것은 분명하다." 며 "가장 중요한 건 '음악' , 그리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쌓은 '로열티' 가 큰 역할을 했다." 고 말했다.

방 대표는 이어 "방탄소년단의 시대정신을 담은 메시지가 디지털 세상을 만나 빠르게 전파됐고, 마침 미국에 없던 어떤 지점을 건드렸던 것 같다." 고 분석하며, "방탄소년단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대의 아픔을 직접 이야기했으며 데뷔 후 한 번도 자신들의 음악적 지향점을 바꾸지 않아 대중에 확신을 줬다." 고 설명했다.

방 대표는 '공장형 케이팝(K-Pop)' 에 대한 서양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아티스트가 메이저 레이블과 계약하기까지 '언더' 에서 몇 년간 활동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연습생으로 트레이닝을 받는다." 며 "어떤 방식이 아티스트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는 논쟁해 볼 만한 사안" 이라고 말했다.

방 대표는 방탄소년단과 비틀스의 비교에 대해 "이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며 해외 메이저 시상식, 특히 그래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뤽 베송 감독, 여배우 성폭행 혐의 부인

'레옹' , '제5원소' , '발레리안' 등을 연출한 프랑스의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 뤽 베송(60·사진)이 여배우 성폭행 혐의를 공식 부인했다.

파리지방법원 예심부는 얼마 전 베송이 2년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네덜란드 여배우 산트 판 로이의 주장에 대해 예심을 개시했다. 이와 관련해 베송은 한 매체에 출연해 자신이 판 로이와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를 위협한 적도, 약물을 투입한 적도 없다." 며 "그녀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 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 로이와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아내와 아이들을 배신했다.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며 "결혼생활 20년 동안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 고 말했다.

판 로이는 2017년 5월 파리의 한 호텔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베송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판 로이는 증거를 보강해 법원에 기소를 요청하는 일종의 재정신청 제도를 이용해 베송을 다시 제소했다.

베송에게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베송이 소유한 영화사 유로파코프의 전 직원과 40대 미국 여배우 등 아홉 명이다.

영화 '조커' 배경음악 논란 아동 성범죄자 곡 사용

영화 '조커' (2019)에 삽입된 음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곡은 아동성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글리터(76)가 1972년 발매한 '록앤롤 파트2' (Rock and Roll Part2)이다. 영화 속에서 조커 역을 맡은 호아킨 피닉스는 춤을 추며 계단을 내려오는 중요한 장면을 연기하는데 이 배경음악이 바로 '록앤롤 파트2' 로 약 2분 정도 사용됐다.

글리터는 2015년, 수 십 년간 저질러 온 아동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6년 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 중이다. 이보다 앞선 2002년에는 같은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추방당한 전력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기가 높았던 글리터의 곡은 대중 매체에서 퇴출됐지만 영화 조커에서는 중요한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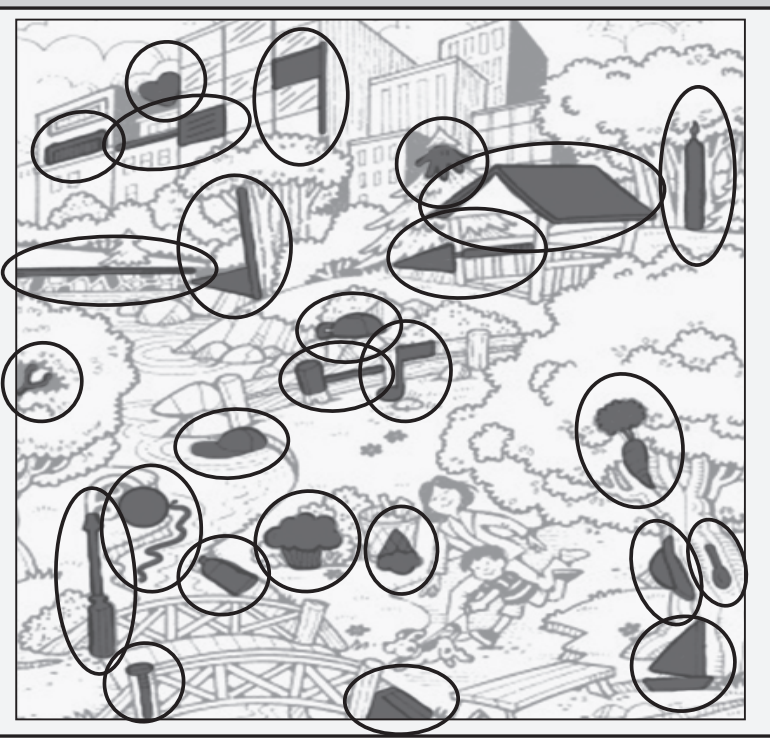
영화에서의 곡 사용으로 글리터가 돈을 벌고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며 논란은 증폭됐다. 한 변호사는 글리터가 저작권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글리터는 데이비드 보위와 미크 볼란 등과 함께 글램 록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꼽혔다.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린 로커였고, 총 2,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와 수십 곡의 히트 넘버를 남겼다.

1285호 낱말퍼즐 정답

	1 혹	평				2 이	3 엉
4 오	한		5 나	루	6 터		터
리			막		7 울	8 타	리
9 온	10 고	지	신			박	
	드			11 골	목	상	12 권
13 으	름	14 장		짜			위
악		15 갑	자	기		16 하	자
17 새	끼				18 고	객	

1285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3에 있습니다)

8		3	1		5	9		
				6		1	8	
	7			2			4	
9				1	8	4		
		5					7	6
2					6			1
		6	4				1	
5			7					9
	1				3	5		

숨은그림찾기 정답